

“ 주님, 왜 우십니까? ”

■ 이종윤 원로목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올라 하신 주님께서 왜 울고 계십니까? 여자여 울지 말라 하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희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의 눈가에 왜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까? 배신의 순간을 받으시면 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던 주님이 오늘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우뚝이 세워진 십자탑을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찬가와 자랑과 찬평(讚評)을 해주시기보다 오히려 보시기에 민망하여 울고 계신 것입니까? 피 묻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찢은 원죄를 안고 싸구려 축복이나 팔고 고난 없는 성공품을 전매하며 신앙의 지조마저 상실한 변모된 이 시대의 교회 아닌 교회를 보시고 견딜 수 없어 그토록 슬프게 보여지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공(公)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익하고 지루하며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 삶은 전체가 예배라는 미명하에 공(公)예배는 가급적 축소 또는 대처시킬 소그룹 모임으로 바꾸고 친교와 기도회로 모여 효과적 실용성을 찾는 예배 아닌 집회를 강조하며 흥미 중심 오락성 흥행몰이 예배가 변질되고 있어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 칭호보다 학문적 업적도 없이 박사로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중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양강좌 수준보다 못한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자칭 성직자라 하지만 자기 기분이나 내는 카우보이들이 되어 양의 머릿수나 세고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기가 막히고 괴로워 울고 계십니까?

바산의 살찐 암소 같은 년들아 하시던 아모스 선지자와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시던 세례 요한이 없어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앞잡이로 변신한 가룟 유다와 그의 후손들을 생각하시고 안타까워 아직도 울고 계십니까? 21세기 첨단과학이 사람들을 광분시키고 혁명적 사건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터에 당신의 피조물들이 점차 번영과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주님이 울고 계시니 어찌 된 것입니까?

질병과 재난, 굶주림과 억눌림에 울고 있는 이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교회 확장이나 하는 것을 주의 일로 착각하고 있는 소욕에 찬 지도자들과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르기보다 바알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리싸움이나 하고 심지어 금권과 폭력까지 동원하여 교회를 점령하려 하니 불 꺼진 등잔이요, 맛 잃은 소금 되어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비통한 모습을 보시고 차라리 하는 마음까지 드셨기에 그것을 끝까지 참으시는 모습이 그토록 슬프게 보인 것입니까?

불의가 참을 꺾박하고 거짓이 진리를 조롱하는 세대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비옵나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놈부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주옵소서! 근심감이 자랑감 되게 하옵시고 일감이 일꾼 되고 싶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오후 찬양예배 시에는 원로목사님 참석 하에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 또 찬양예배에 이어 예,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도 있습니다

※ 아울러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주일예배 이외의 각 교육부서 예배, 새벽기도회, 수요예배는 계속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방역 및 교인 확인 절차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방역 체크를 위해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서만 운행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주차 후, 지하 1층 계단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교인증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입장하시면 됩니다
 혹은 지하 1층 만차시에는 운전자는 지하 1층에 동승자를 하차시킨 후 지하 2층 또는 3층에 주차 후 계단을 통해 지하 1층으로 올라와 발열 체크와 교인증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124_sermon.jpg

한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거룩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교육전도사 김은숙 양하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트바로이, 필리몬, 프란시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통,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진(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 그리스도인의 자유 ”

■ **고전 6:12-17**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유에 대하여 말하면서 자신도 모든 것을 다 할 자유가 있고 그 누구도 자신을 제재하거나 억제할 수 없는 참 자유인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한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자들이 자유를 사용할 때 그 자유는 통제되어야 할 자유임을 선언하며 참 자유의 근원적인 특성을 말씀합니다.

1.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죄 중에 양태되어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시51:5)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5:12)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6:23절에서는 ‘죄의 삯이 사망임을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축수를 택하여 한 나라를 이루시고 죄의 그물에 걸려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약속을 실현하였습니다. 때가 도매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확신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처절한 나약함을 깨닫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롬 7:24, 롬 8:1-2) 우리를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죄의 강력한 힘을 단칼에 박살내고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는 이 위대한 역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중할 갈아도 흰 눈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마치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죄의 모든 기록을 말소시키고, 온전히 도말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세움을 입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는 참 자유입니다.

2.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해방
 성도가 가지는 참 자유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주어지지만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성도들이 가지는 자유에 대하여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징치하시는 진노,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의 매임에서, 죄의 재배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과, 환난들의 악, 사망의 쓰는 것 무덤의 승리 및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WCF 20장1항).

3.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유
 성도가 누리는 참 자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참 자유에 대하여 이렇게 부연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그에게 가까이 순종을 드려도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린이의 사랑하는 마음과 즐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WCF 20장 1항).

맺는 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왕실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를 함양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자유롭게 교통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양춘경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임상현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합 2:20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4(시 81)
* 송 영 Doxology	1(1)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20(41)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6:12-17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그리스도인의 자유(2)”
* 찬 송 Hymn	321(351)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윤지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 든지 앓매이지 아니하리라(고전 6:12)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명절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눅 15:31-32
찬 송	569(442)
기 도	장상국 집사
성 경	겔 34:11-16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내가 내 양을 찾으리라”
찬 송	570(453)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	말 은 이
권면의 말씀 및 기도	이종윤 원로목사
* 축 도	이종윤 원로목사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인터넷 영상)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I 부	김찬진 권사
성 경	삼하 12:1-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minster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minster 홀

교 회 소 식

◆ 모임

1. 공동의회 / 찬양예배 후에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 알림

1. 101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부 예배: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 결 혼

1. 손형호 군(8교구 손태현 집사, 박혜옥 집사의 장남) 박시온 양(6교구 박정인 집사, 성수영 집사의 장녀) / 2월6일(토) 오후 1시 임피리얼 펠리스 7층 셀레나홀(02-3440-8000) 7호선 학동역 1번 출구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475명	373명	1,848명	402명	1,699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30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

기회를 선용하자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지혜요 힘이다. 지나간 다음에 애절한 탄식을 하는 것보다 주어진 때에 오용하거나 남용치 말고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축복의 기회를 선용해야겠다. 소득이 늘어간다고 사치에 취해서는 안되며 명성이 높아가도 교만에 취해서도 안되고 정권을 잡아도 권력에 취해서는 안된다. 축복에 취하다 보면 실패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봉사할 기회도 선용해야겠다. 남의 약점을 보았을 때는 그를 헐기 전에 그를 돕는 길을 찾는 것이 같은 약점을 가진 인간의 할 일이다.

용서할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 원수에게 저주를 퍼붓기 전에 이 때를 용서의 기회로 만들 수는 없겠는가?

“주여! 기회를 잃는 것은 곧 영원을 잃는 것인가 하옵니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절 약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